

# 누에가 전한 용기와 성장...나주문화재단 가족예술교육 호응

## 부모·아이 함께한 문화예술 체험



'꿈트리의 용기'에 참여한 가족들이 실과 고치집을 활용한 예술 놀이에 참여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문화재단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유아 문화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창의적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공동체 만들기에 나서며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인 잠업을 활용한 유아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꿈트리의 용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꿈트리의 용기'는 과거 가가호호 누에를 키워 명주실을 생산했던 나주의 잠업문화를 모티브로 기획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누에의 생애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두려움과 용기, 기다림 등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표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3년 연속 출산율 상승으로 인해 함께 확대되고 있는 유아 문화 정책 수요에 맞춰 아이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에 대한 친밀감과 정서적 연결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프로그램에는 6~7세 자녀를 둔 15가정이 참여해 누에 캐릭터 '꿈트리의 성장 여정'을 따라가며 다양한 예술 놀이를 체험했다. 교육은 지난 5월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3회에 걸쳐 나빌레라문화센터 소극장과 다목적실에서 진행됐다. 참여 가족들은 누에의 성장 과정을 주제로 한 예술 놀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서성택 기자

담양 대전면 수목정원 축제 13일 개최

화순군, 집중안전점검 현장 실시

담양군 대전면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재골 일원에서 '제2회 대전면 한재골 수목정원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한재골의 자연환경을 즐기고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장에서는 초청가수 서지오, 김산옥, 전기호의 공연과 주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무대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 수제 도장 만들기과 대나무 물총 만들기, 떡메치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운영된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5월 29일 도곡면 소재 비오메드요양병원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부기관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호범 부군수와 김강산 병원장을 비롯한 화순군 관계 공무원, 안전자문단 등 2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검반은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반은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남호경 기자

## 영광군, '쉽표여행 SNS 관광후기 이벤트' 추진

반값으로 떠난 영광여행, 후기로 특산품 행운까지 한번 더!



2026 영광 쉽표여행 관광 SNS 후기 이벤트 포스터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영광군수 장세일)은 관광객의 여행 후기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영광 쉽표여행(반값여행)'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8일부터 26일까지 「영광 쉽표여행 SNS 관광후기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영광을 방문한 관광객이 직접 작성한 관광후기를 SNS를 통해 공유하여 영광군 주요 관광자원의 매력을 확산하고 관광객 중심의 자발적 홍보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영광군 공식 SNS 채널

중 인스타그램·페이스북 팔로우, 유튜브 구독, 블로그 이웃추가 중 1개 이상을 완료한 뒤, 영광군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추가하고 영광 관광후기를 작성한 화면을 캡처해 네이퍼폼으로 인증하면 된다.

군은 참여자 중 당첨자 70명을 선정해 6월 30일 영광 쉽표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영광특산품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영광 쉽표여행'과 연계추진해 관광객의 실제 방문 경험을 온라인 후기 콘텐츠로 확산하고, 지역 관광지와 특산품을 함께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SNS 관광후기 이벤트는 관광객이 직접 경험한 영광의 매력을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참여형 홍보사업"이라며 "영광 쉽표여행을 통해 부담은 줄이고, 영광의 관광지와 먹거리, 특산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 장성군, 이달 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기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위반... 변호판 영치·차량 압류 조치

장성군이 이달 말까지 '상반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갖는다.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등이다.

군은 정리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했거나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변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변호판 영치의 경우, 영치단속반이 장성지역을 직접 순회하며 총출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부담을 줄여준다.

장성군은 일제정리기간 이후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체납차량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하반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9~11월이다.

박래석 장성군 교통에너지과장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불이익



장성군청 전경 사진 /장성군 제공

을 받지 않도록, 일제정리기간 내에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단속반을 운영해 지역을 순회하며 변호판 영치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일제정리기간 이후에도 매월 정

기적인 체납 차량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군은 기간 내 자진 납부를 당부하며 체납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섭 기자

